

# 수중 폭력배 악어

김 정 만  
 (서울대공원 진료과장)

지금으로부터 약 1억5천만년전인 중생대에는 파충류가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육지와 수중에는 악어의 선조격인 공룡류가 가장 많이 서식하였는데 수각류, 용각류, 조각류, 공룡류(탱크형 공룡), 뿔룡류가 대부분이고 익룡과 수장룡 및 어룡은 적은 편이었다. 이때를 지금 우리는 통칭 파충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파충류들은 대개 사라지고 현존하는 파충류로 오늘날 공룡류의 후손이다, 축소판이다 하는 "메갈로사우루스"는 물왕도마뱀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공룡류중 "안킬로사우루스"가 현존하는 파충류중 가장 큰 악어와 유사하다.

지구촌을 지배했던 무섭고 난폭한 공룡류는 다사라지고 체장 5~7m 정도의 단신으로 수중에서만 활개치며 그 옛날 화려했던 천하무적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는 딱한 처지로 전락하여 명맥만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다.

생김새가 징그럽고 음흉한 모사꾼 같은 악어는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톱날같이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물어서 절명시켜야만 직성이 풀리는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악어의 눈꺼풀은 이중으로 덮여있어 평상시에도 눈을 감은 것인지 뜯 것인지 구별이 잘 안되며 특히 강가나 늪지의 얇은 물속에 있을 때에는 타동물이 알아 볼 수 없게 흑

탕물을 수시로 일으키고 수심이 얇은 곳에 콧구멍만 삐끔히 내밀고 있다가 물을 먹으려고 강가로 내려오는 동물들을 기습 살생하는데, 흙탕물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게 이중 눈꺼풀로 되어있다. 천진난만한 초식동물들이 흙탕물 속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주둥이를 물속에 넣고 물을 먹으려는 순간 악어는 물속으로 포박하여 접근해와 물 먹는 동물의 주둥이를 비호처럼 물은 다음 물 속 깊이 끌고 들어간다. 이 때 순간적으로 기습당한 동물은 사력을 다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나 악어는 180°로 회전하는 유연하고 힘센 꼬리로 동물을 후려쳐서 쓰러뜨린 다음 물 속으로

깊이 끌고 들어가는데 물속에서도 허우적대면 360°의 물속 회전을 계속하여 물을 흠뻑 먹여 익사시킨 후 흔적도 없이 먹어치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원주민들은 수중 교통수단으로 통나무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악어떼들이 살고있는 근처의 강을 통나무배로 지나갈 때 악어떼들의 번식기나 세력다툼을 벌리는 시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는 근처의 악어들이 수중 깊이 잠수하여 통나무배에 접근한 후 별안간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듯이 180도의 회전과 탄력을 이용해 악어의 꼬리로 무차별하게 후려쳐서 통나무배를 산산히 부서버리고 원주민까지도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는 무서운 살생을 서슴치않고 해낸다. 그래서 수중 강패, 수중 폭군, 수중 폭력배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악어가 화가 나서 흔들때의 긴 꼬리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지구상에 살고있는 악어의 종류는 ① 카비엘 ② 크로커다일 ③ 아리케이트 등으로 대별하며 21종의 악어류가 아프리카를 비롯, 남·북미, 뉴기니아, 동남아 전역의 더운 지방

에만 서식한다.

보통 바다악어의 체장은 7 m에 꼬리는 19~20 개의 미환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악어는 바닷물이나 담수에서도 살 수 있으며 알은 보통 8~10월초에 20~30개 낳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고는 80개까지 낳는 것도 있다. 모래속이나 땅속에 알을 낳아 덮은 후 자연의 습도와 태양열에 의해 9 주일만에 부화된다. 이때 부화되어 나오는 새끼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어미 악어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악어떼들이 산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긴 몸통으로 막아서 바다나 호수 또는 강가로 유도해준다. 일단 바닷속이나 물속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어미나 애비가 돌보아주는 것 없이 만사를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나가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수가 많다.

악어는 보통 생후 4~5년이 되면 완전히 성수가 되며, 발정기가 되면 평상시 서로 의중계 쉬거나 낮잠을 자던 때와는 달리 암놈은 암수간이나 동료간에 구별없이 닥치는대로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다. 일종의 히스테리적인 행동 즉 관심을 갖고 대해주지 않는다는 화풀이가 사랑의씩



을 돌게하는 시작이다. 그리하여 온동네에 소문이 나면 신랑후보감들이 모여들어 치열한 왕위전을 벌이고 최후의 승자가 된 수놈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아랑곳없이 자기의 신부감을 남아챌 후 다른 수놈들로부터의 도전을 피하기 위해 무리의 축복을 받으며 잠수함의 진수식처럼 단 한번 머리를 내민 다음 수중으로 시속 25km의 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꿈같은 허니문을 즐긴다.

그리하여 장시간의 신혼여행을 떠나서 아늑하고 오붓한 둘만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그때서야 안심이 된 신랑은 수중 발레춤을 추며 암수 상전례를 치루

게 된다. 그리고 나면 신부는 온갖 애교를 피우고 있는 수놈의 행동을 만족한 듯이 보고 있다가 별안간 신랑의 목덜미를 인정사정없이 물어서 나뉘게 하는데, 이 때 수놈이 끄덕도 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내면 자기를 일생동안 맡겨도 좋다는 자신감을 얻게되며 이때부터는 주객이 전도되어 암놈이 신랑에게 최선의 애교와 봉사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발정의 최적기가 찾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신방의 첫날 밤은 암수가 수중 깊은 곳을 찾아가 암수간에 배를 맞대고 네다리와 발톱으로 얼싸 안은 후 2 m에 가

까운 두개의 긴 꼬리를 흔들어서 본격적인 수중 무용을 추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짐하고 호뜻한 신방을 한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력의 스테미너를 마음껏 발휘하여 여필종부의 굳건한 말뚝을 박아놓게 된다.

그리하여 신혼의 단꿈이 끝나면 알자리를 보고 20~80개의 알을 낳아 모래나 흙을 덮어 놓는다. 그 후 8 주일쯤 경과되면 자연 부화가 되어 종족번식의 책임은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악어는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지내게 된다. (●)